

건강 칼럼

비정상 자궁 출혈의 치료

비 정상 자궁 출혈의 기질적 원인이 있거나 다른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기질적 이상 또는 원인 질환의 치료를 통해 비정상 자궁 출혈을 치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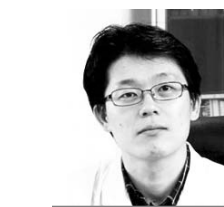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기능성 자궁출혈의 경우 치료 목표는 지혈과 불규칙한 월경 주기를 정상화해 빈혈을 치료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양방에서는 크게 약물치료와 수술 치료로 나누고 있다. 약물치료로는 소염진통제, 호르몬 치료, 미레나 자궁삽입장치 등이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는 이부프로펜 메페남산 등이 있는데 이를 투여할 경우 출혈량의 30~50%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호르몬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용 복합 피임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복합돼 과도하고 불규칙한 비정상 자궁출혈에 일차적으로 쓰인다.

규칙적인 출혈을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양의 출혈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자궁내막이 에스트로겐에 지속적으로 노출



김 이 곤
구암한의원장

출돼 과증식증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에스트로겐 유도성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혈전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는 경구 피임제를 사용할 수 없다. 에스트로겐 제제가 금기인 여성에서는 프로게스테론 단일 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자궁 내 삽입 장치인 미레나(Mirena)는 황체호르몬의 일종인 레보노게스트렐(Levonorgestrel)을 방출해 출혈의 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보통 월경 시 출혈량의 80~90%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치료로는 자궁내막 소파술, 자궁내막 절제술, 자궁적출술 등이 있다. 수술치료는 약물치료에 실패

하거나 약물치료가 금기인 경우 약물치료가 극심한 통증이 동반될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다. 향후 임신을 원하는 경우 수술치료는 적절치 않다.

고전 한의학에서는 비정상 자궁출혈을 붕루(崩漏)라고 했는데 혈붕혈루(血崩血漏)·붕중루하(崩中漏下)라고도 불리었다. 여성 생리 부정 출혈로 생리로부터 이상적으로 피가 나오는 것인데 주로 자궁 출혈을 의미한다. 본래 붕(崩)은 갑자기 피가 많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루(漏)는 피가 조금씩 지속되는 것으로 생리 출혈의 형상과 정도를 표현한 것이다.

붕루는 생기의 기질적 병변에 의해서 오는 것과 기능 장애에 의해

서 오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생기의 기질적 병변(신생물, 이물, 염증, 임신성 변화 등)에 의해서 오는 출혈은 해당 병변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

기능장애성 출혈(성주기 조절에 참여하는 신경-내분비 계통의 장애로 오는 출혈)로서는 성 발육기나 갱년기에 흔히 보게 되는 무배란성인 출혈과 성 성숙기에 주로 보게 되는 배란성 주기 출혈이 있을 수 있다.

붕루는 대체로 혈열(血熱)·기허(氣虛)·어혈(瘀血) 등이 총인경혈(衝任經血)의 비정상상을 그 원인으로 보고 그 경과와 임상 증상에 따라 혈열붕루(血熱崩漏)·기허붕루(氣虛崩漏)·어혈붕루(瘀血崩漏) 등으로 분별해 월경 주기로 회복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해 치료하게 된다.

출혈이 계속될 때에는 기본 치료에 앞서 먼저 여러 가지 지혈시키는 약재를 처방하며 이에 맞는 혈자리에 침치료와 뜸치료를 하게 된다. 또한 붕루 때에는 출혈이 지속돼 기혈이 소모되므로 기혈을 보(補)하는 한약 처방을 겸해 치료한다.

사설

군산형 일자리 빠른 속도감 보여야

군산형 일자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때때마다 어찌 되고 있다고 물었었거나 지금도 군산형 일자리에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군산에 대한 지원의 목소리가 커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줄 알았는데 말이다. 실지자들을 포함해 군산시민들은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들다. 해당 관계자들은 군산 살리기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작업을 서둘러야겠다.

저번에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 지역을 위해 상생형 일자리를 내겠다며 모델 투자 계획이며 추진 방향을 알리는 설명회를 군산시청에서 가졌는데 발빠른 행보라고 보기가 어렵다.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씨 등 인사들이 참석해 방향을 논의하고 격려했지만 그것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겠다고 믿는 군산 시민은 별로 없을 터이다. 지난날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조기 지원 약속이 있었지만 그게 뚜렷한 대책이라고 믿는 이는 별로 없었다.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지원은 그저 원론적인 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추진 행보가 뚜렷해야 한다. 엇그제 24일 25일 양일간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 끝장 토론이 있었나본데 그게 말 그대로 끝장토론이었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 도출된 쟁점은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금이며 노동 시간 외에도 책임 경영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상생 방안 등 쟁쟁한 바가 많은 까닭이다. 정부는 규격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늦어도 9월 중에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 두세 곳을 지정할 모양이다. 따라서 8월 중에 상생 협약이 온전히 체결돼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군산형 일자리 역시나 시간이 경과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통한 소산이기 때문이다. 군산 외에도 경상도의 구미와 밀양, 그리고 강원도의 횡성이 공모사업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도민의 뜻에 부응해 군산 살리기를 힘차게 해야 한다. 군산의 경제 몰락 때문에 전북 전체의 경제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작금이니 말이다. 다시 당부하거나 군산을 살려내기 위해 다들 인간 힘을 써야겠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날 군산 경제가 쓰러질 때 발만 동동거렸을 뿐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제 그렇게 무력해서는 안 된다.

독자제언

음주운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 바뀌어야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못지않게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 상당부분 실력 있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다.

대표적인 사회범죄인 성범죄가 그렇다고 한다. 성범죄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거나 타일러서 해결할 일이라고 보는 시민은 없다. 공동체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능히 공감하는 사안이지만 성범죄는 발생하고 있다. 전쟁을 치르듯 지속적이고도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해도 갈수록 발생건수가 늘고 수법도 대담해진다든 것이 아이러니다.

음주운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음주운전을 용인하는 사회분위기부터 바뀌어야 한다. 술을 조금 마셨다고 괜찮겠지 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그 정도 마셨으면 단속 경찰관에게 걸려도 훈방이 나올꺼야' 라는 사회분위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술 문화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되는 행동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김철호 원안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프란치스코 성인 기리는 '깃털 축제' 참가 어린이



24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엘보스카다에서 올해 두 살된 알마다(왼쪽)가 깃털 의상을 입고 엄마와 함께 프란치스코 솔라노 성인을 기리는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수백 명의 가톨릭 교구민이 새 의상을 입고 16세기에 기적을 행하던 프란치스코 성인을 기리며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속히 성취해야

전북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는 제3금융도시 지정이다. 그런데 그 추진이 오래도록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이 노골적으로 만족을 걸었었는데 그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터이다. 정부가 전북을 제3금융도시로 지정하려하자 부산상공회의소가 발끈하고 나섰다. 그것은 다시 돌이켜 생각해도 분노의 대상이다.전북 금융은 연가금과 농생명 특화 중심이다. 부산 금융은 해양과 관련된 것이라 그 성격과 분야가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서울은 종합 금융이니까 국가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만 착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서울과 부산의 방해 공작은 전북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을 챙겨줄 것처럼 하던 정부가 입장 정리를 미루는 것은 많이 섭섭한 일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이쪽도 잘못이 없지 않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3금융도시 지정만을 욕심 낸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있었던 것은 그래서이다. 그 반성을 토대로 제대로 된 준비 작업이 있어야 한다. 준비 작업이 없이 욕심만 부리다가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은 백년 하청이 될지도 모른다.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했던 서울과 부산의 인사들에게 이쪽을 흔들어댈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저들은 이쪽이 빈틈을 보이면 기금운용분부를 흔들며 별 게 뻔하다. 물론 그런 일이 없도록 전북도는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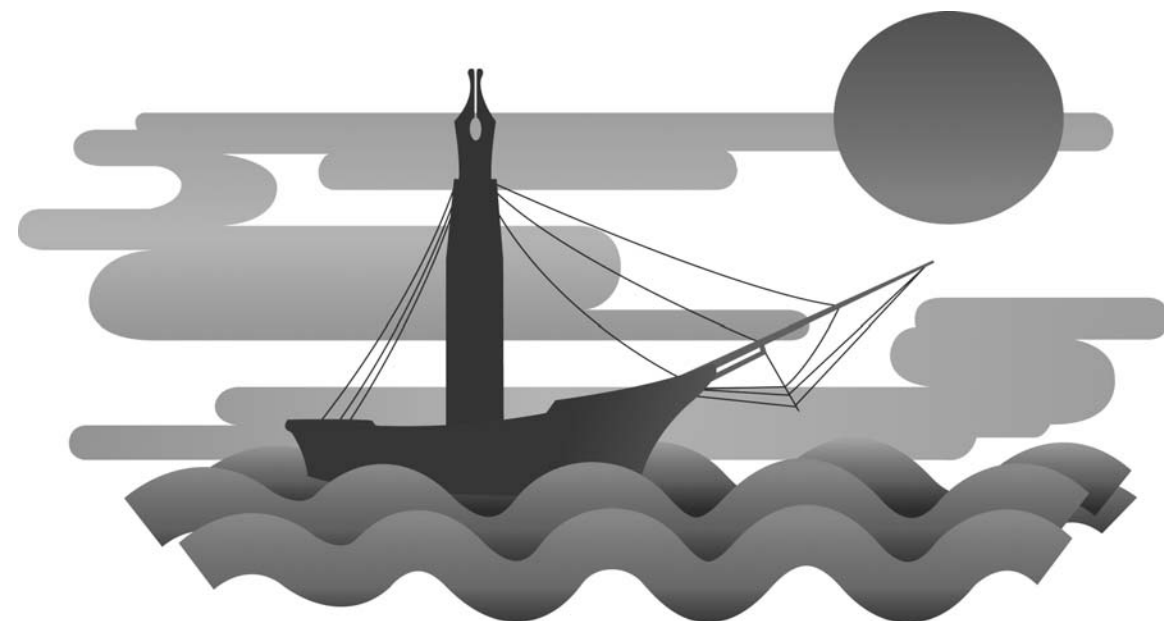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꼭 성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저번에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불리 판단해서 안된다. 기반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이제 서울 부산만 탓한 채로 작업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저들의 방해 공작이 패심하기는 해도 이쪽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 지정 여건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가운데 제3금융도시 지정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전북도는 제3금융도시 지정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제3 금융도시 지정은 도민 모두의 열원이 아닐 수 없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